

## 스승의 모습

| 김흥호 |

모순된 순수의 최고봉인 스승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누가복음 9:22~36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나 난 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누가복음 9장의 유명한 말이 ‘산상 변화’인데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보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인데, 희고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간 산이 3,300m의 헬몬 산인데 이 산은 사철 눈에 덮여 있어요.

흰 눈에 덮인 산을 보면 신성하고 거룩하게 느껴지는데 헬몬 산이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게 변화한 것도 있겠지만 헬몬 산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설악산에 갔었는데 정말 설악도 하얗게 눈이 덮였어요. 서울은 서쪽 끝인데 동쪽 끝은 여기와는 달라요. 여기는 눈이 안 왔지만 거기에는 2~3일 전에도 이미 눈이 15cm가 왔고, 그날도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신성하게 보이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설악”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서 몇 자 적어 봤어요. “설악, 아아!”인데 글로 쓰니까 “아아!”이지, 사실은 “야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중강당에 들어서면서 철쭉을 보고 얼핏 내게서 나오는 소리가 “야아!”입니다. 여러분도 설악산에 가 보면 “아아”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아!” 한없는 감탄사지요. 그리고 흰 눈을 보면 순수하고 깨끗하다 하여 ‘순수’라는 말을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철쭉도 순수한 거지요. 자연이란 원래가 깨끗한 거고, 자연 속에는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지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지, 자연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매일 세수해야 되지만 토끼는 세수 한 번 안 해도 더럽지 않습니다. ‘순수한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겨울에 꽃이 피었

다고 하면 모순이지요. 모순이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아아, 흰 꽃, 설악은 하늘의 흰 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설악에는 천화대가 있는데 하늘에 핀 꽃이라는 뜻이지요. 천화대 맞은편에 또 화채봉이 있는데 동해의 햇빛을 받아 빛나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악에 가보면 설악을 한 송이 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설악을 볼 때 “아아!” 하고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눈에 덮인 자연이 하도 깨끗하니까 순수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 봄에 피는 건데 엄동설한에 핀 꽃이니까 모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순수한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의 설악이라고 하고, 흰 꽃을 보면 누구나 가슴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떠나서 비선대를 지나 금강굴에 올라갔습니다. 금강굴은 장군봉의 북판에 뚫린 굴인데 옛날 원효대사가 수도하던 곳입니다. 금강굴에 올라가서 1분 정도 있으니깐 안개가 벗겨지고 대청봉에 햇빛이 비쳐오는데 정말 한 송이의 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불국사의 석굴암이 좋다는 것은 석굴암의 부처님의 모습을 동해 바다의 아침 햇빛이 비칠 때 보면 정말 웃는 얼굴 같고, 피가 홍조된 모습 같아서 누구나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돌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대청봉에도 햇빛이 비치니까 살았지 산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읽겠습니다.

설악, 아아, 순수한 모순, 기쁨, 얼어붙은 산, 눈에 덮인 물, 아아, 설악의 모습은 웅장도 하다. 설악은 한마디로 ‘아아’ 하고 감탄할 수밖에 길이 없다. 행하니 뚫린 용석굴에는 얼음 밑에 눈을 녹이는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다. 1,250m의 우뚝 솟은 독 바위는 하늘을 찌를 듯 높

이 솟아 있다. 화채봉의 햇살은 천화대에 메아리치고 칠형제의 뒤편리는 꽃처럼 피어난다. 아아, 순수한 모순, 말과 글과 모든 상상을 넘어서서 설악의 모습은 장엄도 하다. 설악은 아아, 한 떨기 흰 꽃, 험한 골짜기에는 눈이 덮이고, 하늘을 찌르는 봉우리마다 얼음이 빛나고 있다.

아아, 설악은 순수한 모순이다. 텅 비인 골짜기와 우뚝 솟은 봉우리가 서로 싸우고 한데 어울려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운다. 안개가 어느덧 봉우리를 메꾸고 골짜기를 덮어 우는 것일까. 바람이 불어 또 다시 봉우리가 드러나고, 골짜기가 열리기 시작하여 웃는 것일까. 아아, 설악, 생각을 넘어서고, 표현을 불허하는, 얼어붙은 산이요, 눈에 덮인 물이다. 다만 솟아오르는 기쁨이 하늘땅에 가득 찬다.

설악, 아아, 순수한 모순, 그것은 기쁨뿐이다. 이 기쁨은 어디서 솟는 것일까. 그것은 순수한 모순에서 오는 것이다. 모순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기에 그것은 수많은 봉우리를 흔들고 싶고, 깊은 골짜기에 메아리친다. 아아, 설악의 산울림이 온 천하를 뒤흔든다. 설악은 우리의 것이면서 그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설악은 한없이 깊은 잠에 얼어붙어 있으며, 겹겹이 겹친 눈송이는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을 뿐이다.

아아, 동해 바다에 해가 떠오른다. 어두운 하늘이 밝아져 온다. 동해에 우뚝 솟은 설악의 뒤편리는 아아, 순수한 모순의 놀이터인가. 깊이 잠든 설악의 겨울은 한 폭의 그림 없는 그림. 하늘땅에 가득 찬 눈에 덮인 설악, 아아, 순수한 모순, 기쁨, 누구의 것도 아닌 얼어붙은 잠. 겹겹이 쌓이고 꽃잎처럼 피어난 눈, 아아, 흰 꽃, 설악은 하늘의 흰 꽃.

이렇게 설악을 그려봤는데 이것은 내가 설악을 그리려고 그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짐작이 가지겠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라는 제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 변화로 그려본 것처럼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설악을 보았으니까 설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을 십자가란 뜻입니다. 이 설악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말할 때 한없이 깨끗하고, 한없이 순수하고, 한없이 장엄하고, 엄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릴케는 이것을 장미라는 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미, 아아, 순수한 모순, 기쁨. 누구의 것도 아닌 잠. 겹겹이 겹쳐진 눈썹.” 릴케도 장미를 그려본 것이지만 릴케 마음속의 대상도 물론 그리스도이지요. 릴케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장미니까 역시 장미를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밖에 길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난 시인이 아니어서인지 장미를 보아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빨갛다든가, 가시가 있다든가, 그런 생각이 나지 굉장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눈에 덮인 설악을 보니까 그것은 정말 굉장한 감격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장미라는 말을 설악이라는 말로 바뀌서 적어본 것입니다.

릴케는 “겹겹이 겹친 눈썹” 그랬지만 난 “겹겹이 겹친 눈송이” 이렇게 바꾼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릴케나 나나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1,250m란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물론 독 바위가 높아서이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왜 또 용석골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뭐라고 해도 좋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한번 “야아!”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렇게 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상이란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장미나 설악으로 표현하면 쉬운 거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표현이 되려면 한없이 깊은 생각을 해야지, 그저 쉽게 간단히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쉽게 표현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이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상은 한없이 깊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을 표현하느라고 나오는 책이 몇 만 권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자들이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예수님의 생각 밑바닥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없이 깊으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한 것은 다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직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지만 한없이 깊은 말씀입니다. 괴테도 “앞으로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 나와도 예수님의 생각을 넘어설 사상이나 종교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한없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높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첫 출발을 할 때인,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와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슨 주의자들은 이 사람도 욱하고, 저 사람도 욱하지만 예수를 욱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니체 같은 무서운 독설가도 바울을 놓고는 죽으라고 욱하면서도 예수만은 어떻게 못합니다. 세상에 니체 같은 독설가가 어디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는 죽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예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지요.

칼라일이 인물전을 쓰면서 세상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쓰면서도 그 속에 예수를 넣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이라고 하기에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높다는 것과 깊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악에 갔는데 설악이 하도 높아 보이고, 용석골 골짜기가 하도 깊어 보이니까 그것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에베레스트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에베레스트가 높아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다 하늘 아래 납작한 뾰이지요. 그러니까 실지로 예수의 인격이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변화했다는 것을 무엇이 됐다, 라는 것이기보다 예수님의 본체가 그렇게 높고 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본체와 그 모습을 보고서 “야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별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서 한번 “야아!”하고 감격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느라고 교회 다닌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 번 예수의 인격과 사상 앞에 “야아!” 한다는 것, 이 “야아!”라고 하

는 것은 말로는 못하는 것이지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성의 차원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성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은 이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면 예수님께 대하여 “야아!” 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이 감격이 있어서 사는 것이지 감격이 없다면 산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격이지요. 감격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꽃을 보고 “야아!” 하고 감격을 했으니까 꽃이 사랑이 되지 감탄하지 않았다면 꽃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를 보고도 “야아!” 할 수 있을 때 백합화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야아!” 하는 한마디에 그만 내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가슴이 탁 터져야 내 속에서 기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의 생활이고, 이 기쁨의 생활이란 감격을 느끼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성경에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고 하는데, 하도 감격스러워서 그만 이성이 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성 이상의 것이 작용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성 이상의 것이 작용해서, 산다는 것을 현대말로는 ‘실존’이라는 말로 씁니다. 맨 밑에 물질을 놓고, 물질 위에 생명을 놓고, 생명 위에 이성(정신)을 놓고, 이성 위에 실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존이란 더 쉽게 말하면 ‘신성神性’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성을 느

끼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존주의를 ‘엑시스턴스existence’란 말로 쓰는데 이 ‘엑스ex’라는 말은 ‘밖으로’란 말이고, ‘시스템스sistence’라는 말은 ‘밖에 나가선다’는 말입니다. ‘황홀’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오묘하다, 아찔하다, 아득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아!” 할 때 이건 오묘하고 아찔한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야아!” 하는데 이 꽃 한 송이를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이 하나님의 작품을 대할 때 “야아!” 하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아!”를 통해서,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에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에 감격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야아!”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한 포기의 철쭉이라고 해도 좋고, 장미라고 해도 좋고, 설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해도 좋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가운데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한 번 “야아!” 하고 감격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또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고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 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축소시켜 놓으면 7장 12절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여 미국 헌법은 황금률에 토대를 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합쳐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했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놓고 보면, 모세와 엘리야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인물이 나타나는데 모세는 ‘깡 사람’이고, 엘리야는 ‘산 사람’이고, 예수는 ‘큰 사람’입니다.

유대 민족 문화의 원천은 모세에 있습니다. 매일 유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읽는 것이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호멧이 모세 오경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마호멧은 언제나 나도 한번 우리 아랍 족속의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호멧의 기도지요.

그런데 정말 마호멧은 아랍 족속의 모세가 됐습니다. 모세 오경 같은, 코란이라는 경전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유대 문화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당시 이방 사람 속에서 유독 유대의 민족정신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모세는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을 만든 사람이요, 한글은 우리 민족문화의 근원입니다. 세종대왕 이전에는 다 한漢 문화였지 우리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린 사람은 이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통합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삼일절인데 공약 3장의 첫 조건이 주체성입니다. 2장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3장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삼일 운동의 셋은 살아야겠다, 깨야겠다, 그리고 커야겠다. 즉 질서정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어른스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지요.

산상 변화에도 삼일 운동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가 두 사람과 같이 나타나지요. 예수라는 속에 한없이 깊은

문화와 한없이 높은 인격이 통합되어 나오는 겁니다.


문화와 인격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인격은 귀에서 나옵니다. 문화는 눈에서 나옵니다. 눈을 뜨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이 문화이고, 귀로 들리는 것을 코로 살면 그것이 인격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할 때는 코인데 코가 산같이 높지 않습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처럼 깊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라는 사람이 코도 상당히 높고, 입도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가 뚫려서 하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인격이란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았을 때 인격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를 말할 수 있을 때 문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사는가, 하는 사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 민족의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주체성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눈을 뜨고서 무엇을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언론의 자유가 나오는 것이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는 아닙니다. 눈 감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귀가 뚫렸든가, 눈이 뚫렸든가 하는 것이 결국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의 산과 입의 바다는 땅에 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두 눈 중에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입니다. 이 눈과 귀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과 귀가 뚫린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귀 밝을 ‘총’과 눈 밝은 ‘명’입니다. 귀가 뚫리고 눈이 밝아질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늘의 아들이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나라의 귀가 되고, 이 나라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있습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1919-2012)**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